

벨하 신앙고백

서문

북미개혁교회 (CRC)의 교회관계 위원회 (IRC)는 2009 년도 총회로 하여금 벨하 신앙고백을 벨직 신앙고백, 돌트신경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이어 교단의 네번 째 신앙고백으로 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네번 째 신앙고백을 더한다는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교회관계 위원회는 또한 2012 년도 총회가 벨하 신앙고백을 공식적인 신앙고백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도록 2009 년도 총회에 제안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교단내 각 교회와 노회는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까지 3 년 동안 벨하 신앙고백을 연구할 수 있다.

교회관계 위원회가 벨하 신앙고백을 채택하도록 제안한 이유는 그것이 이미 CRC 교단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있는 세 신앙고백에 동의하고 그 내용을 보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교단의 이전 총회들은 이미 벨하 신앙고백이 역사적 개혁 신앙고백의 내용에 근거하고 있으며 연합, 공의, 그리고 화목에 관한 성경적 원리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승인하였다. 벨하 신앙고백의 채택을 제안하는 교회관계 위원회의 상세한 제안서는 2009 년도 총회 어젠다, pp. 269-313 에서 볼 수 있으며 또한 교단 웹사이트 www.crcna.org 에서도 찾을 수 있다.

벨하 신앙고백을 고려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이미 교단의 총회가 인준한 바있는, 특별히 개혁교회 연합 카운실 (Reformed Ecumenical Council)의 설립에 관한 1990 년도 총회의 선언과 “다양하고 통일된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한 1996 년도의 결정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2009 년도 총회 어젠다의 교회관계 위원회 보고서는 이러한 이전 총회들의 결정을 수록하고 있다.

미국개혁교단 (RCA)도 또한 벨하 신앙고백의 채택을 고려하고 있다. 두 교단의 총회들은 벨하 신앙고백의 채택에 있어서 두 교단이 협력할 의사를 표현하였다.

교회관계 위원회는 CRC 교단 내에서 벨하 신앙고백을 논의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그러한 논의에 관한 문의는 Dr. Peter Borgdorff (pborgdorff@crcna.org)에게 하기 바란다.